충장로·금남로, 보행환경 개선 필요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 전문가 공동 '보행공간 이대로 좋은가' 워크숍 스토리텔링 등 융복합적 변화로 예술의 거리・동명동까지 이어지게 해야

광주지역 환경단체와 도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충장로와 금남로가 옛 명 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광주 '중심 상업지역'으로 불리웠던 충장 로·금남로 일대에 스토리텔링, 조형, 미디어 등의 융복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삶 디자인센터에서 '금남로 보행공간, 이대로 좋은 가'를 주제로 하는 시민 전문가 공동워크숍을 열 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환경운동연합를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와 한국도시설 계학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시민환경연구소가 주 최하고 오방장애인자립센터가 함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금남로 주변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충장로 일대 를 직접 걸으며 보행환경을 분석했다.

금남로는 광주시 북구 발산교앞 교차로부터 동 구 금남로1가 문화전당역 교차로까지 25~40 m의 폭에 총 1.895km의 길의 거리다.

충장로는 발산교앞 교차로부터 동구 금남로1가 문화전당역 교차로까지 거리로 8~12m폭에 1.6km

'충장로 공간 변화와 보행환경'을 주제로 이날 강의한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금 남로 상가가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

김 교수는 "예전부터 금남로가 갖고 있었던 광 주의 중심상업가라는 상징성은 이제는 찾기 어렵 게 된게 사실"이라며 "광주의 상권이나 업무의 중 심이 대부분 광주 미래발전계획에 따라 옮겨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는 광주천 중심으로 광 주의 발전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로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금남로 상업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 다. 광주천을 따라 예술의거리, 동명동까지 이어지 는 가로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국내외 보행환경 개선 사례와 비교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복합개발이 트렌드 다. 상업지구 내에 호텔이 들어서기도 하고 호텔 이 청년을 위한 1인주택이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금남로 일대 상가는 대부분 음식점과 카페로만 이 뤄졌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동성로가

보행환경 개선으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 로 되살아 난 것으로 예로 들었다. 동성로 거리 곳 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과 공연장, 그리고 문화 행 사들이 이어져, 방문객들에게 도시 속 문화를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김교수 의 설명이다. 김교수는 서울 신촌·홍대·북촌 한옥 마을 거리와 일본 도쿄의 오모테산도 패션의 거리 ·마로노우치 거리, 중국 상하이 신티엔디 거리, 미 국 포틀랜드 펄거리, 독일 베를린 운터덴린덴 거 리 등을 보행환경 개선의 성공사례로 들었다.

김교수는 "당장 충장로만 살펴봐도 대부분이 중 ·고등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상가들이다"라며 "금 남로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 권, 주거시설 도입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 했다.

사람을 오게 하려면 단순 관광에 그치는 것이 아 닌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순 먹거리가 아닌 주거시설을 갖춘 다음 도심 접근권, 이동권, 상권 등의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면 금남로가 장기적으로 도심 주거지 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외 '예술의 거리', '혼수의 거리', '인쇄의 거 리'등 한가지 거리로 통일시켜 관련된 상가들이 한데 모이게 하는 것도 용도에 한계를 갖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금남로 보행공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를 살피며 보행환경을 분석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북구,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나눔가치 확산

업무협약 체결···장학금·컴퓨터·생활용품 등 후원 약속

광주시 북구가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을 전달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인 '희망을나누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았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최근 '희망 나눔 장 학금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 약체결로 북구는 2년에 걸쳐 ▲장학금 2400만 원 ▲3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억원 상당의 생활용 품을 희망을나누는사람들로부터 후원받게 된다.

북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20명에게 후원받은 장학금을 매월 5만원 씩 24개월 동안 지급하고 3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는 저소득층 3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2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은 희망을나누는사람 들과 구체적인 후원물품 협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 와 협력해 돌봄 이웃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선의를 베푸신 김정안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 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 들이 지역사회의 온정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복 지자원 네트워킹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지난 2007년 국민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시대를 열어보자는 염 원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전국 지자체와 희망 나눔 장학사업, 문화체험 지원 사업, 컴퓨터 지원 사업 등을 협업 추진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나 눔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회복지 후원기관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남구, '환경관리원 인력·청소차' 대폭 늘렸다

인력 27명·차량 10대···안전사고 예방·청소 행정서비스 향상

광주시 남구가 환경관리원 인력과 인프라를 확

21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최근 환경관 리원 인력 27명을 충원하고, 청소 차량도 10대 증 차했다

이번 조치는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남구 환경관리원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 열린 광주 5개 자치구 및 각 자치구 가정청소환경관리노동조합간 간담회에서 노동조 합이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항인 청소 차량 발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법에서는 다리 절단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청소차 발판 설치 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3월 환경관리원의 안전 보호를 위해 남구내 청소 차량의 모든 발판을 제거

하지만 발판이 사라진 뒤 환경관리원의 피로도

및 업무강도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지적 이 나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조사 결과 남구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2~3일에 1번씩 이뤄지고 있는데, 환경관리원의 1 인당 하루 평균 보행수는 발판 제거 전 1만5000보 수준에서 발판을 없애고 난 후 3~4만보로 크게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에 따라 남구는 환경관리원의 업무강도 감 소와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를 위해 적정 인력 및 차량 증차분을 산출해 환경관리원 27명 추가 투 입과 함께 청소 차량 10대를 증차했다.

이로써 남구내 환경관리원 종사자 수는 기존 110명에서 137명으로 늘었으며, 청소 차량도 33 대에서 43대로 증가했다.

남구 관계자는 "환경관리원의 업무강도 증가로 생활 쓰레기의 매일 수거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차량과 인력을 늘린 만큼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생태계 교란종, 친환경 액체 비료로 재탄생

월출산 국립공원, 미생물과 발효···증식장 복원지·농가 등에 전달

생태계 교란종이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 료로 재탄생한다.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제거된 생태계 교란식물로 친환경 액체비료〈사진〉를 제 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래 식물 중 생태계의 균 형을 교란시킬 수 있는 생물인 생태계 교란식물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다.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올해 10월 생태계 교 란식물을 제거해 이를 미생물과 발효시켜 만든 친 환경 액체비료를 제작했다. 제작된 액체비료는 화 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환경오염 등의 우려 없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 다. 공단은 제작된 액체비료를 국립공원 자생식물 증식장과 훼손 복원지, 지역 농가 등에 전달했다. 한정훈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월출산국립공원은 우리 지역의 자연 생태계 보고 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전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충장동, 독거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 협업…돌봄이웃 집수리 지원

광주시 동구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 령화 사회에 진입해 사회문제로 불거진 독거노인 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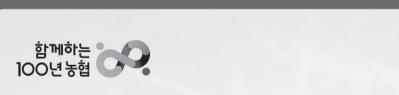
21일 광주시 동구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최근 민간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열악한 환 경에서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광주시 광산구 자원봉사센 터 소속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 회원 10여 명 이 함께 동참했다.

이들은 홀로사는 노인 주거지의 오래된 벽지・장 판·싱크대를 교체하고 LED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집안 내・외부 환경을 정비했다.

선종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올겨울 한파를 앞두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맘이 놓인다"면서 "추 후에도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과 지속적인 협 력관계를 구축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잠자리를 따 뜻이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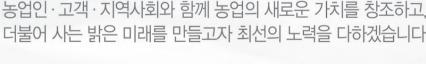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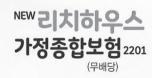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를다운동생 서광주농열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 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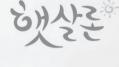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 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 암지점 062)527-3295~6 운 첩지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 암 벽 산 지 점 062)529-5335~6 **빚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